

효녀 심청이



AI도움받아 김 경석쌤

작가프로필

AI라는 특별한 상상력 친구와 손을 잡고, 생애 첫 동화책을 세상에 선보이게 된 신예 동화작가입니다.

기술의 힘을 빌려 머릿속 무지갯빛 꿈들을 하나씩 현실로 풀어내는 과정은 매순간이 새롭고 신기한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. 차가운 화면 너머로 따스한 온기를 담아낸 첫 도전처럼, 앞으로도 어린이와 어른 모두의 마음을 다정하게 감싸 안는 몽글몽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.

아이들의 마음에 예쁜 씨앗을 심어주는 따스한 작가로서,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습니다.

2026년 5월부터 기획, 7월완성

김지영



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

"안녕!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,
함께 떠나볼까요?"

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전래동화에 'AI 시대'의 상상력을 더한 특별한 패러디 동화를 만들었습니다.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다독이는 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지혜니까요.

우리는 AI와 도란도란 소통하며 그림을 그리고, 부안의 고운 말씨로 이야기를 새롭게 엮었습니다. 토끼와 거북이가 다정하게 손잡고 디지털 세상을 달리는 등 상상력 가득한 패러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.

부안의 맑은 바람을 닮은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듯한 햇살이 되길 바랍니다. 정성껏 빚어낸 'AI 시대 패러디 전래동화' 속으로 다 함께 떠나볼까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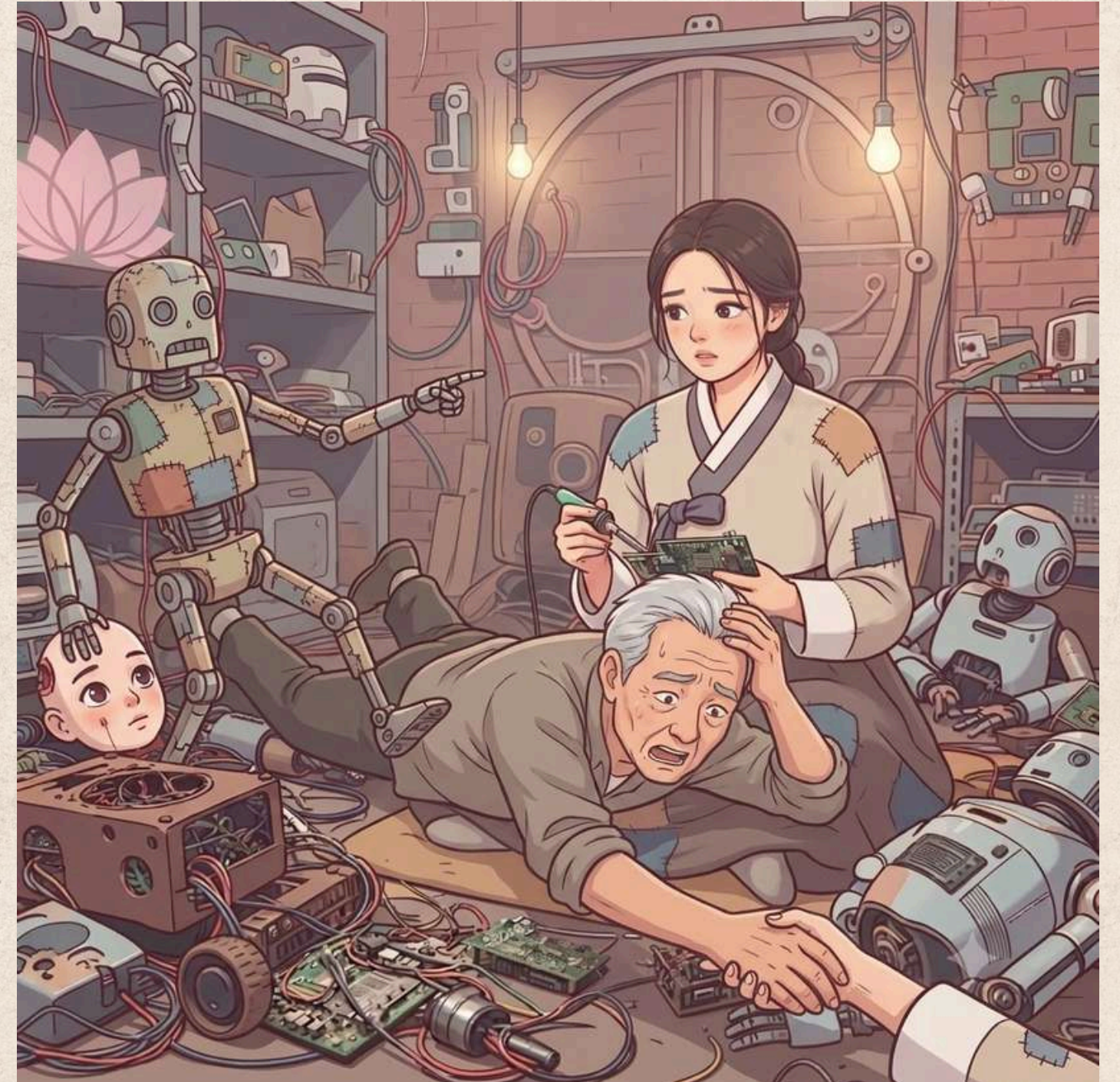
제1장: 낡은 로봇들의 집

모든 것이 AI 로봇으로 움직이는 시대. 하지만 청이네 집은 가난해서 낡고 고장 난 로봇들뿐입니다. 청이는 오늘도 어지러운 부품들 사이에서 아버지를 도울 방법을 고민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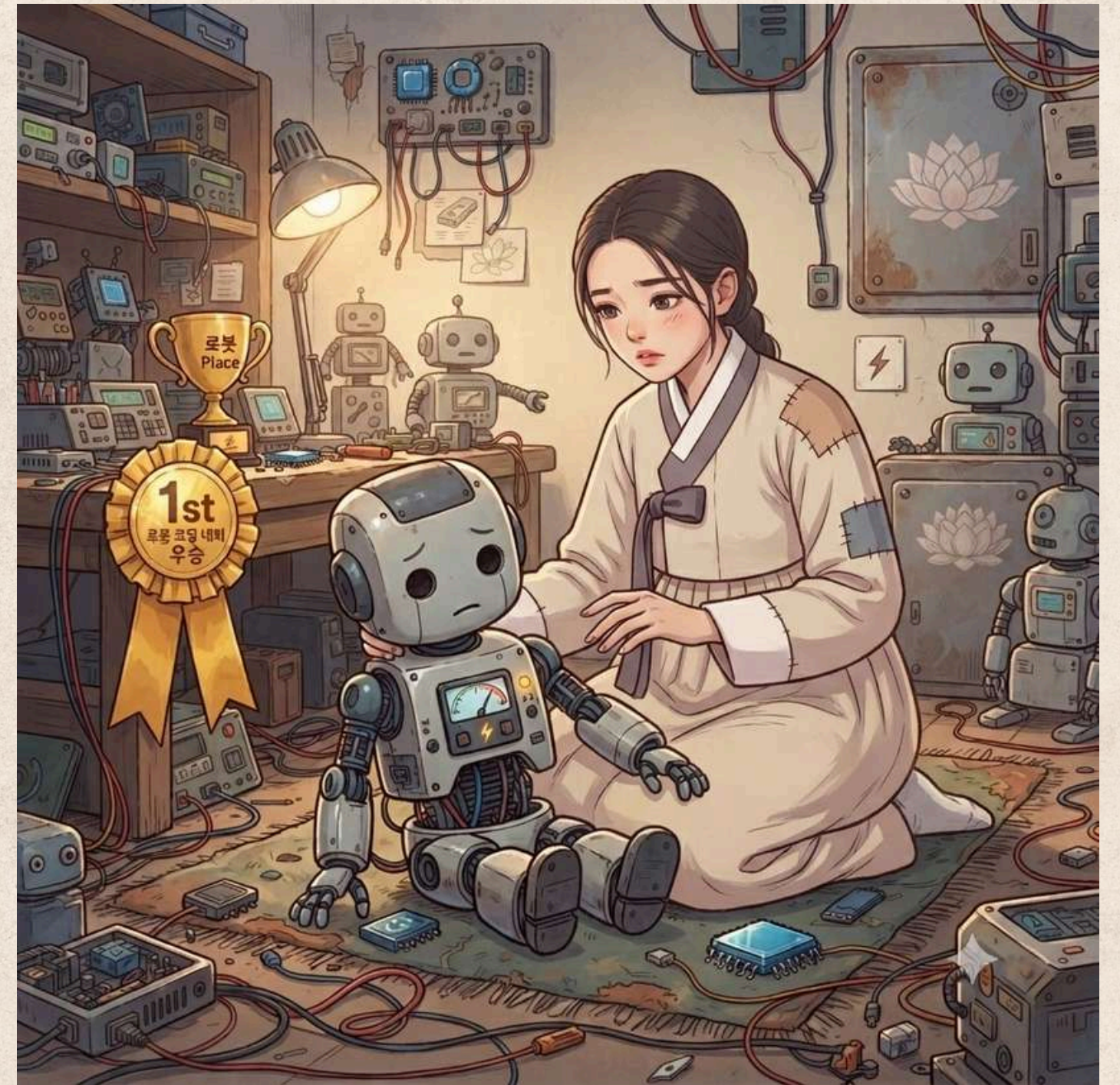
제2장: 아빠의 눈이 되어줄 로봇

"청이야, 이 로봇은 또 어디로 간 거니? 도통 거시기해서 뭐가 뭔지 하나도 안 보이네." 낡은 로봇이 엉뚱한 곳을 가리키자 아빠가 넘어지고 맙니다. 청이는 아빠의 손을 잡으며 결심합니다. '아빠를 위해 완벽한 효도 로봇을 만들고 말 테야!'



주석: '거시기' - 정확히 이름이나 상태를 꼬집어 말하기 어려울 때 쓰는 부안 지역의 일상적 감탄사/대명사.

제3장: 대회 우승과 효돌이
청이는 로봇 코딩 대회에서 우승합니다.
부상으로 받은 부품들로 아버지를 위한 초
기 모델 로봇 '효돌이'를 만들지만, 효돌
이는 아직 전력이 부족해 자주 방전되곤
합니다.



제4장: 퓨처 컴퍼니의 제안

세계 최고의 로봇 기업 '퓨처 컴퍼니'에서 청이에게 연락합니다. "청이 어린이, 우리가 슈퍼 칩을 줄 테니 우리랑 일해보지 않을래? 아주 멋따시 좋은 기회야." 하지만 대가는 10년간의 우주 테스트 참여였습니다.

주석: '멋따시' - '무엇 때문에(뭐 때문에)'를 뜻하는 부안 지역 사투리.



제5장: 고통스러운 결단

청이는 고민합니다. 하지만 비가 오던 날, 효돌이가 방전되어 아빠가 넘어지는 모습을 본 청이는 눈물을 흘립니다. "아이구, 삭신이 쏘시네. 청이야, 내가 노곤해서 그런지 맘대로 안 되는구나." 청이는 아빠를 위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.



주석: '삭신이 쏘시네' - 온몸의 마디마디가 아픔을 뜻함. / '노곤하다' -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뜻함.

제6장: 함정에 빠진 청이
우주선에 탑승하는 청이. "아빠, 이제
걱정 말고 그러그러 마음 편히 계세
요." 하지만 퓨처 컴퍼니 사장은 청이
를 정전기 행성이 아닌, 로봇 폐기장
행성으로 보내버립니다.

주석: '그러그러' - 상대방의 말을 긍정하거나 안심시킬 때 쓰는 불안 지역의 의성어/의태어 및 감탄사.



제7장: 폐기장에서의 재기

폐기장 행성에 버려진 청이. 하지만 청이는 절망하지 않고, 그곳에 버려진 낡은 부품들을 조립해 다시 통신 장비를 만듭니다.



제8장: 기적의 연결

청이의 간절한 효심이 담긴 신호가 지구의 효돌이에게 전달됩니다. 지구에서 잠들어 있던 '슈퍼 칩'이 스스로 빛을 내며 활성화됩니다



제9장: 효돌이의 변신과 악행 폭로
효돌이는 아바의 눈을 대신하는 최첨단 증강현실 안경으로 변신합니다! 청이가 미리 코딩해둔 프로그램이 작동하며 퓨처 컴퍼니의 악행이 세상에 모두 밝혀집니다.



제10장: 행복한 재회

사장은 체포되고 청이는 무사히 지구로 돌아옵니다. "아따, 참말로 이게 무슨 일 이여! 앞이 다 보이다니!" 이제 심 봉사는 청이의 효심이 깃든 안경으로 매일매 일 행복한 세상을 바라보며 '살았답니다.

